코일코팅 시장 Valspar-BASF 대결

2000년 M&A로 세계 1-2위 구축 … 자동차 OEM 시장 대체가 관건

2000년 페인트 및 코팅기업의 M&A가 1999년에 비해 주춤했으나 코일코팅은 2000년 M&A에 따라 순위가 크게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최대 인수는 Valspar가 Lilly Industries를 9억7500만달러에 사들인 것으로 Valspar의 매출이 14억달러에서 20억달러로 증가해 세계 8위에서 7위로 한 단계 올랐다.

인수를 통해 Valspar의 공업용 코팅, 특히 2000년 M&A 바람이 제일 심하게 불었던 코일 코팅제 사업이 강화됐다. Valspar는 5억7000만달러의 북미 코일코팅 시장의 17%를 차지하고, Lilly는 인수 전 15%를 차지했다.

Valspar는 철강 건축재용 코일코팅 부문 1위 공급기업이고, Lilly는 Aluminum Substrates용 코일코팅 공급기업이다. Valspar가 공업용 코팅제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함으로써 주기에 민감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Lilly는 농업·건설용 장비, 기기, 건축제품, 가구, 거울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북미시장에서 1위 또는 2위를 차지했다. Valspar는 Lilly 인수 이전에 코팅부문 매출의 35%를 차지한 포장, 25%를 차지한 공업용, 건축·자동차 Refinish제품, 나머지를 구성하는 에어졸 스프레이 페인트 등의 특수제품을 주로 공급했다.

Valspar는 Lilly 인수를 계기로 2001년 매출 20억달러를 달성하고, 2004년에는 매출 30억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매출과 수익 면에서 연평균 15%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도 목표 중 하나이다.

거의 절반은 포장, 공업용 코일, Electrocoat, 분말 등 내부에서 충당되고, 나머지는 인수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Valspar는 Lilly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얻게 될 상당액의 비용절감을 통해 인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BASF는 2000년 초 Morton International의 코일코팅 사업을 Rohm & Haas로부터 사들이고 Norsk Hydro의 사업도 인수해 시장점유율 23%로 1위에 등극했다.

BASF는 인수를 통해 매출 2억유로(1억7240만달러)를 기록해 14억유로 시장의 15%를 점유하게 됨으로써 명실 공히 미국 1위 자리에 오르는 한편 세계적으로는 Akzo Nobel 다음 2위 자리에 안착했다.

BASF의 공업용 코팅 사업을 맡고 있는 Wolfgang Straehle은 향후 5년 이내에 Akzo Nobel을 따라잡고 세계 1위의 코일코팅 생산기업으로의 부상을 계획하고 있다.

세계 코일코팅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이 5%로 코일 페인트 생산이 기존 라인보다 빠르고 이용되는 자산이 좀더 저렴해 자동차, 지붕 등 새로운 시장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있다.

자동차 생산기업들이 기존의 OEM 페인트로는 페인트 라인을 가동하는데 시간당 약 200달러가 들지만, 코일코팅으로는 30달러밖에 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동차기업들이 자체 플랜트에 투입한 상당량의 자본이 회수돼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코일코팅으로 전환하게 될지는 미지수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2/06/10>